

저수온 피해 날로 심각…물고기 '월동장 구하기' 비상

전남 양식장 밀집해역과 80km 떨어진 거문도 1곳 뿐…30여년 이용 '0건' 어민들 "옮길 곳 없다" 하소연…도, 신규 월동장 시범운영 등 대책 고심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 변동이 커지면서 저수온 어가 피해가 해마다 커지자 전남 해역 양식어민들과 지자체가 '월동장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해상 월동장은 저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 중인 물고기 등을 옮겨와 수온이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든 구역을 가리킨다.

전남에서는 유일한 월동장인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월동장이 30년 가까이 '이용자 수 0명'으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남도 등도 뒤늦게 신규 월동장을 시범 운영하고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난 1998년 거문도 해역을 월동장으로 지정한 이후 3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이용 실적이 없었다.

거문도 월동장은 50여㏊로, 어민이 가두리 시설을 직접 옮겨와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용 능력은 6×6m 가두리 2750여개 설치가 가능하고 성어 1700여만 마리, 치어 5600여만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매년 수백억원의 저수온 피해로 양식장 물고기들을 그대로 폐기하면서도 월동장을 이용하려는 어민들은 전무했다. 최근 4년간 전남 지역 저수온 피해는 421만2000마리, 피해액은 13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2022년 8만6000마리, 2022~2023년 192만5000마리, 2024~2025년 250만 1000마리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민들이 외면한 데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행정식 지정, 관리가 한몫을 했다.

가기도 쉽지 않은 곳에 월동장을 조성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거문도 월동장은 가장 가까운 주요 양식장 밀집지점인 여수시 월호동·돌산읍 일대와도 80km 이상

떨어져 있다.

물고기가 든 가두리를 통째로 들고 80km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 자체도 힘들다. 유류비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동 과정에서 그물이나 다른 물고기 등에 부딪혀 폐사할 위험도 커진다.

남면 화태리에서 양식업을 하는 황양선(57)씨도 "거문도까지 이동만 4시간이 걸리고 20~30t에서 많게는 100t까지 옮겨야 해 운송 수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가까운 해역으로 분산하려 해도 모두 어기를 수용하기 어렵고 부대시설도 부족하다. 화태리 일대 15~25개 어가 중 3분의 2 이상이 월동장 부족을 호소할 정도"라고 말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저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월동장 확보가 절실히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여수 해역 저수온 경보(해수 온도 4도 이하)는 지난달 23일 발령돼 전년보다 14일 앞당겨졌다.

어민 윤도인(47·여수시 화정면)씨는 "거문도 대신 금오도 인근으로 옮겨 자체적으로 월동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옮길 장소가 없는 어민들은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전남도 등은 최근 여수시 남면 장지 해역 2.7㏊에 시범 월동장을 마련하고 참돔 40만 마리를 시험 양식중이다.

금오도 해역은 겨울철 수온이 10도 아래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수심도 10~15m로 깊어 수온 변화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 전남도 설명이다.

여수시는 "거문도 월동장이 양식 밀집 해역과 멀어 이동 비용과 폐사 위험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이용자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범 월동장이 정식으로 이뤄질지는 미지

수다. 해당 해역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 자연공원법상 월동장 시설을 설치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월동장을 양식장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하고 있어 사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등을 들어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도 이같은 점에 주목, 정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월동 전·중·후 3차례에 걸친 환경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월동장 설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온, 용존산소(DO), pH, 염분, 영양염, 해양퇴적물 등 주요 지표를 종합 분석해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공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월동장은 일시적으로 어류를 옮겨 두는 시설로 먹이 공급이 거의 없어 환경오염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며 "시범 해역에서 오염이 없다는 점을 실증해 규제 완화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정식 월동장 지정과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며 "어민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양식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여수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10일 여수시 남면 장지 해역에서 여수시 관계자가 시범 월동장 내 가두리 양식시설을 가리키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땐 월동장 구하기 쉬워질 듯

해상국립공원 내 지정 가능

국립공원 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더라도 환경부가 월동장으로 지정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수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불신해 재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기후변화로 저수온, 고수온 피해가 커지면서 월하동장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지정 권한은 환경부에 있어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특별시장이 월동장 지정 권한을 가짐에 따라 전남 어민들의 이상 기회 대처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물 매입 이중 계약으로 3억원 횡령 광주 외국인 단체 대표·임원 첫 공판

광주의 한 외국인 단체 대표와 임원이 단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 계약으로 매입 비용을 낮춘 뒤, 남은 비용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판사는 10일 업무 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외국인 단체 대표이자 A씨와 임원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 9일까지 15차례에 걸쳐 3억 1735만원의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협회를 대리해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토지 및 건물을 1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약정을 추가로 들어 총 매수금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후 이들은 2016년 1월 중도금 명목으로 B씨의 계좌에서 5억원을 인출해 토지·건물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했으며, 추가로 9억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해 매도인의 계좌로 5억 5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 때 매매 대금 지불 이후 수표 잔여분 3억 여원이 남았는데, A씨 등이 수표를 반환하지 않은 채 3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일부 혐의와 증거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오후 5시에 광주지법 302호에서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맥주병 휘둘러 실명하게 한 50대 2심서 감형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

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사업 문제로 B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을 실명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밤 10시 20분께 여수시의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50대 B씨의 얼굴 등을 가격해 실명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실명 판

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사업 문제로 B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맡다툼을 한 끝에 깨진 병을 B씨에게 휘둘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인 점,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인정되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공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눈 부위 공격의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을 해 혐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 운동하는 여중생 성희롱 기계체조 국가대표 검찰 송치

함께 운동하는 10대 후배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기계체조 국가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부경찰은 지난 5일 기계체조 종목 국가대표 A(19)군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같은 종목의 후배인 중학생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SNS로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에게 "씻을 때 영상통화하자"는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서울성동경찰로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은 A군의 주거지 관할인 광주부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을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